

보도설명자료

('23. 3. 3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
(3.29일 연합뉴스, KBS 등 「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3.4%... OECD 37개국 중 최하위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 내용

-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3.4%에 불과,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(23.42%)의 7분의 1수준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'19년 재생에너지 비중 3.4%는 전력을 포함한 열, 수송 등 전체 에너지의 최종소비 기준*이며,

* 산업, 수송, 가정, 상업부분 등 최종 소비부문에서 사용한 에너지로,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

- 전력부문은 발전량 기준으로 '19년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4.4%이며, '22년 7.8%(잠정치)까지 확대되고 있음

- 또한, OECD 국가는 수력·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풍부*한 편이나,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으로, 국가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

* OECD 국가는 발전량 기준 수력·바이오 비중이 평균 15.8%이나, 한국은 1.8%에 불과(2022, IEA)

-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, 전력비중 기준으로 '30년 21.6%, 36년 30.6%까지 확대 예정임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노진만 사무관(5362)